

CLUBD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Fall | 2022



클럽디 거창 WEST 9번홀

CLUBD STORY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CLUBD)거창, MZ세대 인생샷 맛집

경상남도 유일 27홀 정규 퍼블릭 코스 골프장...

개성있는 포토존과 테니스장도 갖추어 골퍼에게 인기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최근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린, 티잉 그라운드 및 페어웨이뿐만 아니라 색다른 즐길 거리로 골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클럽디(CLUBD)거창 클럽하우스 2층에는 골프장에서 볼 수 없는 테니스코트가 있다. 이 때문에 골프와 더불어 테니스도 즐길 수 있어 MZ세대 사이에서 인스타 맛집으로 선택되었다. 또, 테니스공과 테니스 라켓이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푸르른 감악산을 내려다보며 해발 600미터의 풍경을 배경으로 테니스장에서 인생 최고 장면을 노려볼 수 있다. 클럽디(CLUBD)거창의 광장에 있는 시계탑 포토존도 인기다.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시계탑과 벤치를 배경 삼아 감악산과 함께 사진 한 장에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맑은 하늘과 붉은빛 노을을 하늘의 저녁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어느 인기 카페 부럽지 않다. 클럽디거창은 차별화된 라운지와 리무진 스타일의 고급형 골프 카트, 여성을 위한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비치 등을 통해 MZ세대의 취향과 차별화된 골프 문화를 느끼고 싶은 골퍼들에게 클럽디(CLUBD)만의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클럽디(CLUBD)거창에 매료되는 순간... SBS GOLF '골프에 반하다' 조명

김동희, 최나연, 이혜지 프로 출연... 39회 ~ 41회차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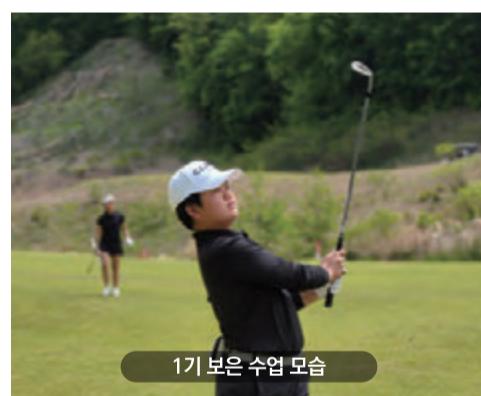
클럽디(CLUBD) 거창이 아름다운 자연의 골프장에서 펼쳐지는 라운드를 다루는 SBS GOLF 채널의 ‘골프에 반하다’에 등장했다. 클럽디 거창 편은 골프에 반하다 39회, 40회, 41회에 방송되었다. 이혜지, 최나연, 김동희 프로가 등장하였으며 플레이 도중 프로들은 입을 모아 ‘하늘과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경치를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집중이 잘된다’라며 클럽디 거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클럽디 거창의 매력적인 코스와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이 더해진 골프의 반하다 클럽디 거창 편은 유튜브 조회수 약 3만회를 기록했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클럽디, 사회공헌 프로젝트 ‘클럽디 꿈나무’ 연 3회 성공적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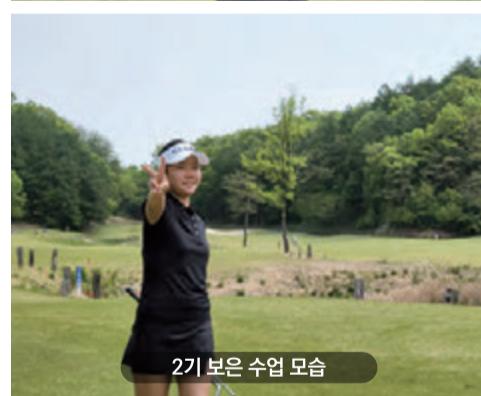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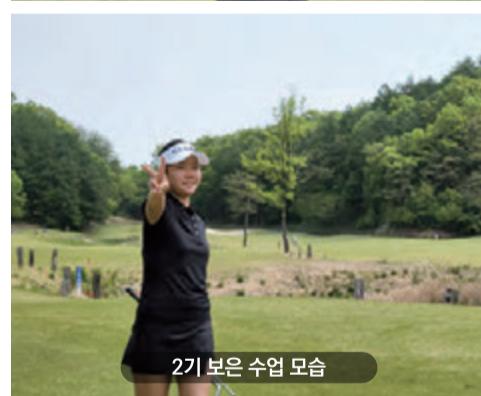
클럽디 보은, 속리산, 금강, 거창 등 골프장서 전국 단위 동시 진행... 골프여제 박세리 감독 참여 화제

친환경 기업인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가 운영하는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실시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 ‘클럽디 꿈나무’가 올해 3기수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클럽디 꿈나무 프로젝트는 충북 클럽디 보은(18홀), 충북 클럽디 속리산(18홀)과 전북 클럽디 금강(36홀), 경남 클럽디 거창(27홀) 등 클럽디 4개 골프장에서 전국 단위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골프 여제 박세리 감독도 교육에 참여해 많은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였으며 KLPGA, KPGA 프로 또한 코치로 참여하였다. 삼성 웰스토리 (Samsung Wel Story)와 프라이빗 이동 서비스 무브 (MOV)도 아이들의 영양가 있는 식사와 편한 이동을 제공하여 교육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럽디 꿈나무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클럽디 꿈나무에 참가한 학생들은 ‘골프를 배우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어 아쉬웠던 것을 클럽디 꿈나무에서 이를 수 있어 행복했다’, ‘주말마다 넓은 필드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많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골프의 재미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제공한 클럽디 꿈나무는 2023년에도 더나은 프로그램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표_2022년 클럽디 꿈나무 참여자 성적]

기수	이름	수상내용
1기	신진영	제 33회 서울 특별시 협회장배 여초부 준우승
	정조국	제 4회 오토플렉스배 KYGA 전국청소년골프대회 남초부 우승
	장원영	제 10회 MBN 꿈나무 대회 남초부 준우승
		제 39회 블루원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준우승
	박효담	2022 삼부토건배 조선에듀·TV조선 주니어 골프대회 항률부 우승
	손제이	제 39회 블루원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13세이하부 여자 3위
		제 5회 서라벌배 전국초등학교골프대회 초등연맹 대회 남자 문무부 우승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골프부 경기 남초부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
		제 1회 BBQ 한국유소년골프 왕중왕전 고학년 남자부 준우승
	이소윤	제 21회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골프대회 남초부 우승
	이치우	제 27회 경상북도지사배 골프선수권대회 여중부 우승
	김동휘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골프부 경기 남자 중등부 단체전 금메달
	2기	제 39회 블루원배 한국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 13세 이하부 남자 3위
		제 14회 박세리배 전국초등학생 골프대회 여초부 3위
		제 18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여초부 우승
	김규리	제 8회 아시아경제 주니어골프 챔피언십 여자부 준우승
	임수민	제 4회 오토플렉스배 KYGA 전국청소년골프대회 여중부 우승
3기	정서린	2022 삼부토건배 조선에듀·TV조선 주니어골프대회 불새부 준우승





웨이스트 벙커를 알면 스코어가 줄어드는 ‘클럽디 보은 WEST 4번’

코스제원 : PAR4, 258m(화이트 티), 235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6,463회 / 파 113,278회 / 보기 92,565회 / 더블보기 38,621회 / 트리플보기 12,288회

WEST 4번 홀은 짧은 PAR 4홀로 단단한 모래의 웨이스트 벙커가 도사리고 있어 티샷 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홀입니다. 티잉 그라운드 위치 및 드라이버 비거리에 따라 원온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주변 웨이스트 벙커와 페널티 구역의 긴 러프가 있어 용감한 도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으므로 티샷 시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는 홀입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 어프로치 전략으로 욕심을 버리고 웨이스트 벙커를 피하는 티샷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버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글 | 허현숙 CLUBD(클럽디) 보은 경기 팀장



시원한 내리막 자연이 보이는 ‘클럽디 속리산 WEST 6번’

코스제원 : PAR 4, 330m(화이트 티), 255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7,444회 / 파 84,004회 / 보기 1,221,174회 / 더블보기 71,475회 / 트리플보기 23,145회

WEST 6번 350m PAR 4홀입니다. 티잉 구역에 올라서면 탁 트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내리막 홀입니다. 좌측은 OB, 우측은 해저드이기 때문에 되도록 티샷은 우측 카트 도로를 보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세컨드샷으로 온그린을 성공시키기에 거리는 짧은 편이며, 그린이 우측으로 흐르는 홀이라 핀 좌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팅 시 핀 우측을 공략하는 오른쪽 퍼팅으로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매력적인 홀입니다.

글 | 남승미 CLUBD(클럽디) 속리산 경기 팀장



반전이 있는 매력적인 ‘클럽디 금강 WEST 7번’

코스제원 : PAR 4, 402m(화이트 티), 342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3,526회 / 파 53,188회 / 보기 111,239회 / 더블보기 72,091회 / 트리플보기 25,513회

WEST7번은 클럽디 금강의 가장 긴 PAR 4홀로 핸디캡 2번의 난이도 있는 홀입니다. 좌측 도그렉 홀로 티샷 공략 시 원쪽에 벙커를 피하면 어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컨드에 도착하면 200m 선상에 심한 내리막으로 투온이 어려운 심적 부담을 갖게 되는 반전 있는 홀입니다. 그런 주변의 벙커를 피해 쓰리온 작전으로 공략하면 파 세이브를 하는데 유리합니다.

글 | 최은숙 CLUBD(클럽디) 금강 경기 팀장



황매산의 신비로움을 갖춘 아름다운 시그니처홀 ‘클럽디 거창 WEST 8번’

코스제원: PAR 5홀, 화이트 티(450m), 레드 티(375m)

코스기록 : 버디 7,135회 / 파 29,370회 / 보기 38,810회 / 더블보기 25,739회 / 트리플보기 9,817회

WEST 8번 홀은 산으로 둘러싸여 아득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서코스 시그니처 홀입니다. 티잉 구역에서 세컨드까지 넓게 보이는 페어웨이로 시원한 드라이버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 자리한 워터해저드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유 있게 클럽을 선택해 공략하시면 투온도 가능하여 이글(Eagle)에도 도전하고픈 욕심나는 450m(화이트티 기준) PAR 5홀입니다. 그런 경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형태이며 그린 초입부터 오른쪽 경사로 짧게 온 그린 시켜 퍼터로 마무리하면 즐거운 스코어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글 | 박희정 CLUBD(클럽디) 거창 경기 팀장



광활한 전경을 배경으로 한 맛집 ‘클럽디보은’ 레스토랑

자연경관을 그대로 즐기며 자연림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골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클럽디 보은’은 골퍼들에게 ‘풍경 맛집’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의 메뉴들로 ‘음식 맛집’ 이라고도 불린다. 클럽디 보은이 이러한 맛집으로 불리게 된 이유의 중심에는 대구 수성호텔, 오션힐스골프클럽, 해운대비치골프장 조리 실장 등의 요리 경력을 가진 ‘김용규’ 셰프가 있다. 그가 추천하는 클럽디 보은의 가을철 메뉴는 ‘해물파전’, ‘버팔로윙 플래터’, ‘전복 해초비빔밥’이다. ‘해물파전’은 오징어, 흥합, 새우, 다진 매운 고추, 부추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으며 봄과 가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이다. 무엇보다 해물파전 위에 올려진 큰 고추튀김은 많은 두부와 다진 야채가 속을 꽉 채우고 있어 골퍼들이 라운딩 나가기 전, 든든히 배를 채우는데 한몫하는 메뉴다. ‘전복 해초비빔밥’은 전복과 톳, 6가지 해초류가 주를 이루며 두부를 기름에 으깨 전복과 볶아 하루 재워 둔 후 다진 소고기와 함께 볶은 것이 맛의 비법이며 해초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들기름을 넣은 간장을 스스로 함께 비벼 먹으며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이다. 마지막으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버팔로윙 플래터’는 바삭하게 튀긴 치킨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소세지, 양배추샐러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맥주, 소주 등 모든 주류에 어울려 많은 골퍼들이 찾는 인기 메뉴이다. 추워지는 가을 날씨 속 자연 속 최고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 ‘클럽디 보은’에서 눈도 입도 즐거운 힐링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INFLUENCER INTERVIEW

골프뿐만 아니라 예능, 유튜브까지 섭렵 완료 ! 유튜브 채널 '세리TV' 개설한 박세리 감독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름, 박세리 ! 전설의 골프선수에서 이제는 ‘리치 언니’, ‘국민 언니’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녀. 다양한 예능프로그램, 후배 양성 사회공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골프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최근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했다는 박세리 감독을 클럽디가 만나봤다.

Q.CLUBD: 안녕하세요,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박세리 감독(이하 박세리): 안녕하세요. 저는 전 골프선수였고, 현재는 2019년 ㈜바즈인터넷서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불이자면 유튜브 세리TV 채널 주인 박세리입니다.

Q.CLUBD: 골프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박세리: 전 처음에 육상선수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골프는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당에서 아버지 따라 몇 번 채를 휘둘러 보았던 것이 저의 첫 골프 인생의 시작이었죠.

Q.CLUBD: 감독님께 골프란 무엇인가요?

A.박세리: 골프란 제 인생이며, 골프=박세리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30대 후반에 은퇴했으나 젊은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를 하면서 지냈는데 골프를 빼면 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골프라는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인생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먹은 대로 컨트롤이 쉽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또 내리막일 때는 끝도 없이 내려가죠. 정말 인생이란 곡선과 비슷한 게 골프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대 쉽게 놓치지 못할 그런 존재이죠. 제게 골프란 인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Q.CLUBD: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박세리: 미국에서 한창 투어 생활을 할 때 저를 굉장히 잘 쟁여주시던 한인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들께서 복잡한 저에게 꽂게 낚시를 한번 가자고 하시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명하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낚시를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도 했고,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CLUBD: 골프를 잘 치는 소소한 팁은 무엇인가요?

A.박세리: 정말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가장 힘들잖아요. 저는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 꾸준한 연습이라 생각되고 일단 좋은 선생님의 코칭을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우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골프는 꾸준함이에요. 열심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정말 이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런데 그게 소소한 팁입니다.

Q.CLUBD: ‘리치언니’ 별명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A.박세리: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고 있는 게, 리치라는 뜻은 부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 여유와 남을 돋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너그러이 베풀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저는 리치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제가 배풀 수 있는 부분을 베풀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과정 같은 것이 리치의 삶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Q.CLUBD: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시면 무엇인가요?

A.박세리: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자! 즐겁고 여유로운 인생이 목표인데, 일이 너무 많네요. 하지만 일하는 과정도 지금은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서 저에게 또 다른

복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Q.CLUBD: 여려 예능에 출연 종이신데 본격적으로 예능을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박세리: 은퇴 후 몇 년 후에 ㈜바즈인터넷서점을 설립 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운 좋게도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전 예능인도 아니고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의 자연스러움을 그냥 보여주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했더니 그런 모습들을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게 주시는 사랑과 관심에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CLUBD: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도 후배들을 지원하시는 것이고, 주니어를 육성하는데 마음을 더 기울이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A.박세리: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발전이죠.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과 후배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꾸준한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을 골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골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Q.CLUBD: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 개최하신 후기는 어떠셨나요?

A.박세리: 개최 전까지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고 바빴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 직원들은 한 달 내내 편히 잠 못 잘 정도로 바쁘게 대회 준비를 했었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하는 게 처음이라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준비를 잘한 덕분에 큰 사고 하나 없이 멋지게 대회를 마치게 되었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일 먼저 든 감정은 “감사”였어요. 먼 타지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LG전자 박세리 채리티 월드 매치’를 위해 달려와 준 우리 레전드들 로레나 오조아, 아니카 소렌스탐, 청아니, 로라 데이비스, 크리스티커 선수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또 바쁜 일정에 우리 현역선수들이 와줄 수 있는지 물어본 연락에 흔쾌히 한달음에 달려와 준 제 후배들, 김효주, 박민지, 박현경, 조아연, 임희정, 황유민 프로들에게도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릴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번 채리티 매치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Q.CLUBD: 클럽디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A.박세리: 자연 속 숲속 같은 청朗한 느낌이었어요.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랄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 제가 클럽디 꿈나무 활동으로 클럽디 골프장을 세 군데 정도 다녀왔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골프장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Q.CLUBD: 유튜브를 개설하셨다고 들었는데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A.박세리: 우리 회사(바즈크리에이티브)에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 유튜브 이름은 세리 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예능형 프로그램으로, 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예능형 콘텐츠입니다. 물론, 골프장 말고 전국 어떤 곳이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시 말해 스포라이즈 개념인거죠. 예능형 콘텐츠인 만큼 일반인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방송에서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CLUBD: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박세리: 앞으로 더 바빠질 예정인데요, 지금 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번에 새로 시작한 유튜브, 방송, 강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업무들을 비롯해 우리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점차 형상을 드러내는 수소 경제의 퍼즐



글 | 권순우 삼프로TV 취재팀 어떻게든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1월 9일 제 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회의다. 정부는 세 가지 성장 전략을 통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규모-범위의 성장이다. 수소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사용해야 규모의 경제가 창출된다.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2030년 3만대 보급이 목표다. 수소 생산은 국내외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청정 수소를 생산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청정수소를 생산해야겠지만, 국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여건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성장 방식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인프라-제도의 성장이다. 수소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건 인프라다. 수소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수소충전소도 확대한다. 2030년 액화충전소 구축 목표는 70기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를 운송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 액화수소 인수 기지를 건설하고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수소사업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산업-기술의 성장이다. 수전해/액화수소 운송선/트레일러/충전소/연료전지/수소터빈 등 수소 전주기에 걸쳐 7대 전략 분야를 선정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국산화율을 현재 75%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수소전문기업을 30개에서 600개로 늘리고 글로벌 1위 품목도 현재 2개에서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 5차 수소경제위원회는 개최 자체가 수소 산업계에 중요한 메시지가 됐다. 사실 수소 산업계는 새 정부가 꾸준히 지원을 할지 우려했다. 수소 산업은 아직 시장에서 다른 에너지와 경쟁을 하기에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보니 정부 지원에 따라 산업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원전에 관심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외연 밸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새 정부가 처음 발표한 수소 정책은 기존 정책과 세부 항목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같다. 오히려 이전까지 자동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에 방점이 있었다면 좀 더 큰 규모의 인프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글로벌 수소 경제가 성숙하는 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소 경제의 첨병으로 인식되던 수소차 보급이 생각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수소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줄었다. 혹자는 역시 수소는 안된다고 평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이나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수소차의 진화 속도를 다소 늦어졌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국가는 93개국(21년 기준)이다. 그 중 미국, 유럽, 영국, 호주 등 39개국이 수소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독일은 수소를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2020년 국가 수소 전략을 수립했다. 독일 정부는 2030년 수소 수요량의 16%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한편 북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으로부터 수소를 수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독일은 북부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은 남서부 산업 단지다. 풍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운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수소다. 독일은 풍력발전 단지에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생산 분야는 2030년까지 5GW, 2040년까지 10G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만든다. 운송 분야는 가스 네트워크 발전 계획(Gas Network Development Plan) 2020~2030 아래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수소 운송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소 운송 네트워크는 1200km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활용하는 수소전기차는 2030년까지 180대다. 만대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는 1000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로 가는 자동차, 공기로 가는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류는 미국은 에너지부와 캘리포니아주가 수소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소 수요를 1700만톤으로 확대하고, 항상 더 많은 에너지를 갈구 했고 무한한 에너지를 꿈꿨다. 사실상 무한한 자원인 물, 공기를 에너지로 활용한다면 인류는 그렇게 바라던 무한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같은 발상의 근간에는 수소가 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고,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물과 전기가 나온다. ‘물 → 수소 → 물’ 무한한 순환 에너지다.

“물의 구성 성분인 수소와 산소는 무한한 열과 빛을 제공해주는 에너지원이야. 물이 바로 미래의 석탄이지” 찰 베른은 1874년 공상과학 소설 <신비의 섬>에서 이같은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이후 거의 1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이 아니다. 수소는 항상 꿈의 에너지였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수많은 연구자들은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래 에너지로 남아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인류의 당면 고제가 되자

그린수소 비율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네옴시티에는 첫 번째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시설 건설이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국영 기업 ACWA power와 에어프로덕츠가 추진하고 있고, 하루 600톤의 그린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약 2만대의 버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네옴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5000억 달러, 약 650조원이 투입되며 제 2의 두바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예 새롭게 구성되는 미래 도시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 기반으로 건설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소 관련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SK E&S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3만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생산한 수소는 전국 거점 지역의 충전소를 통해 공급된다. SK E&S는 미국 플러그파워와 공동 설립한 SK플러그하이버스를 통해 버스 차고지 등 수요처 인근에 액화수소 충전소 약 40여개소를 구축 중이다.



포스코는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에 2030년까지 50만톤, 2050년까지 700만톤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철강업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하고, 다양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회사들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을 연구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수소와 가스를 혼합해 전력을 생산하는 혼소 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과 혼소발전에만 2050년 500만톤의 수소가 사용된다.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는 전방위적으로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철강사인 포스코는 재생에너지용, 수소저장 탱크/파이프라인 강재를, 포스코인더는 CCS사업 개발과 글로벌 수소 무역을, 포스코건설은 수소 프랜트 건설을 전문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포스코 그룹과 두산중공업은 암모니아를 들여와 다시 수소를 추출하는 분해기, 이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구동 하는 발전 기술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 1위 수소차 업체인 현대차는 올해도 판매량,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수소차는 총 1만2407대다. 이 중 현대차는 7410대를 차지해 59.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스위스에서 종합 누적 운송거리 500만km를 돌파했다. 2020년 운행을 시작한지 2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성능과 내구성이 개선된 현대차의 차세대 연료전지는 2027년 출시될 전망이다. 당초 양산 시점인 2023년에 비해 4년이 늦어졌다. 현재 수소 시장이 초기인 만큼 무리하게 새로운 연료전지를 출시하기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CCU(탄소포집·활용)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다. 친환경기업 (주)이도는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 포집 및 활용(CCU) 분야의 국책과제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일 평균 1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목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가스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심지어 석탄 발전소도 재가동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친환경 산업은 버블이며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은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의 퍼즐을 맞춰 가고 있다.

이도(YIDO), 타이거 우즈 '풀스윙(FULL SWING)'과 브랜드 협약 체결

이도(YIDO)와 미국 골프 시뮬레이터 전문 기업 풀스윙(Full Swing)이 브랜드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11월 15일 개최하였다. 풀스윙 런치모니터는 타이거우즈가 직접 기술개발에 참여해 프로선수와 일반 골퍼들에게 뛰어난 스윙 데이터와 실시간 볼 피드백을 제공하며 그와 동시에 스윙키트는 5D AI 마이크로 레이더로 전체 볼 비행을 측정해 정확한 볼과 클럽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2022 제네시스 챔피언십 공식 런치 모니터로 지정되었던 풀스윙 키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실내 골프 클럽인 '클럽디 청담'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나볼 수 있다. 클럽디 청담에는 프라이빗 골프 레슨 시설과 다양한 골프용품 브랜드 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풀스윙 플래그십 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골퍼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이도(YIDO)-KGA,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 개최 협약

대한골프협회(KGA)와 (주)이도가 지난 10월 27일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CLUBD Amateur EcoChampionship)' 골프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클럽디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은 미래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 꿈나무 육성과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클럽디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은 4라운드 72홀로 남자 선수권부 및 여자 선수권부로 나뉘어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2023년 6월 전북 클럽디 금강(18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ESG 대표주자 발돋움"… 이도, 200억 녹색 채권 발행

밸류업(Value-UP) 플랫폼 전문회사 이도(YIDO)가 환경 사업 운영 확대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2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 녹색 채권이란 ESG 채권(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기능채권) 중 하나다. 이도는 녹색 채권 발행에 앞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로부터 녹색 채권 인증 평가를 받은 결과 '부합(PASS)' 판정을 획득했다. 또한 이도는 향후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수직 농업과 시설원예 등 스마트팜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폐배터리의 추출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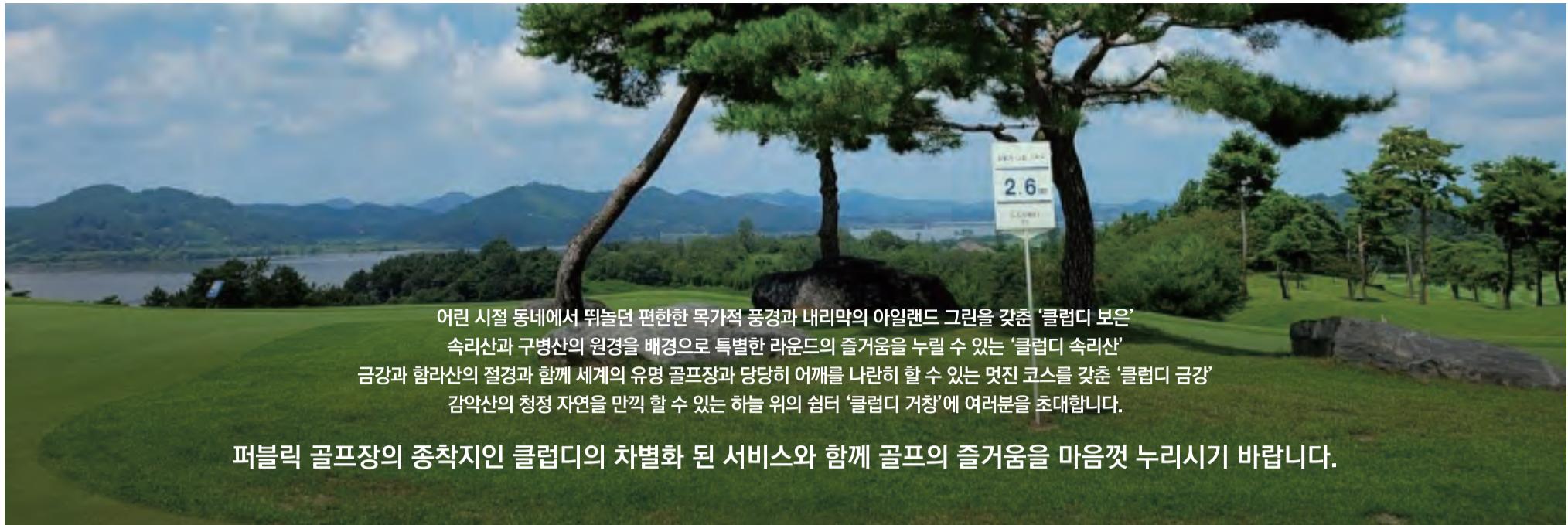


친환경 기업 이도(YIDO), WWF와 여의도 생강 생태 공원서 'ECO 캠페인'활동 실시... ESG 경영 실천

친환경 전문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플랫폼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여의도 생강 공원의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 기관인 WWF(세계자연기금)과 함께한 (주)이도의 'ECO 캠페인' 일환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금번 'ECO 캠페인'에서 (주)이도 임직원들은 생강 공원 제방 인근에 있는 어린 버드나무를 캐서 화분에 옮겨심는 활동을 했다. 어린 버드나무들은 화분에서 2년 정도 키워져 여의도 생강 공원 내 필요한 곳에 옮겨져 공원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여름철 태풍으로 생강 내 쓰러진 나무나 버려지는 잔가지들을 모으고 활용하여 곤충과 새 등의 겨울철 서식지로 활용되는 비오톱 만들기 활동도 했다. 비오톱 만들기 활동은 버려지는 나무들의 소각량을 줄여 환경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활동을 마친 임직원들은 모두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찼다.", "환경 보호에 있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CLUBD 우수캐디

노순민
클럽디 보은
경력 14년

손하영
클럽디 속리산
경력 9년

정숙희
클럽디 금강
경력 17년

김소람
클럽디 거창
경력 7년



G+ Plus

G골프의 Plus 재미를 더하다!

클럽디 인터넷 고객 대상으로 예약 및 내장, 고객별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등급 점수로
고객별 6개월마다 차별화된 클럽디 G-Plus의 다양한 쿠폰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YIDO safeD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Contech Future Leader 산업안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스마트 위험성평가
위험성 크기 평가, 조치/검토

위험요소 제거
추가위험 발굴, 위험요소 사전 제거

안전 모니터링
GPS를 통한 출입/작업위치/동선

비콘
이동식장비 털부착, 스마트폰 접근경고

커뮤니케이션
SMS, Mobile Push 알림 가능

연단체 할인 그린피(카트비, 캐디피 별도)

구분		1,2,3,12월	4~6월	7~8월	9~11월
월요일	1부(~07:30)	최저 그린피	69,000	69,000	79,000
	1부(07:31~)		79,000	79,000	89,000
	2부(12:30~)		89,000	79,000	109,000
주중	1부(~07:30)		79,000	89,000	89,000
	1부(07:31~)		89,000	89,000	99,000
	2부(12:30~)		99,000	99,000	119,000
주말	1부(~07:30)		119,000	109,000	129,000
	2부(12:30~)		129,000	119,000	139,000

혜택사항

구분		기본제공	
회장, 총무 할인	주중	4팀(16인 이상)	1인 그린피 무료
		6팀(24인 이상)	2인 그린피 무료
	주말	4팀(16인 이상)	1인 그린피 50% 할인
		6팀(24인 이상)	1인 그린피 무료
추가혜택	주중 1부 6시대 내장 연단체 조직 무료제공		
	모든 요일 여성 단체 7:30 이전 공지 그린피 1만원 추가 할인		
	7월, 8월 내장 시 계약 팀인원 전체 커피 서비스		
	연단체 회장 및 총무 전화예약 개별 내장 시 그린피 팀당 1인 50% 적용 (본인만) 적용		
	VIP일반 단체 실시간 요금 적용, 추가 혜택 없음		
	※ 기존 연단체 2년차 팀 특별 혜택 : 22년 연단체 그린피 적용(기존 연단체는 예약실로 따로 문의 바랍니다.)		

클럽디 거창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 문의전화: 055)945-2222

클럽디 보은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안내 info_boeun@clubd.com
예약 booking_boeun@clubd.com

전화 043-540-8888
팩스 043-540-8889

클럽디 금강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응포면 강변로 130
안내 info_geumgang@clubd.com
예약 booking_geumgang@clubd.com

전화 063-720-7700
팩스 063-720-7799

클럽디 속리산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상장로 230
안내 info_songnisan@clubd.com
예약 booking_songnisan@clubd.com

전화 043-540-8000
팩스 043-544-9600

클럽디 거창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안내 info_geochang@clubd.com
예약 booking_geochang@clubd.com

전화 055-945-2222
팩스 055-945-6060



WWW.CLUBD.COM

CLUBD